

**○ 외환리포트**

<b>전일동향</b>	전일대비 7.40원 상승한 1,113.30원에 마감
-------------	------------------------------

2일 환율은 전일대비 7.40원 상승한 1,113.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60원 오른 1,108.50원에 개장했다. 오전 중 환율은 달러화 반등과 위안화 강제 반납에 전일 하락폭을 되돌리며 상승하였다. 오후에도 상승 폭을 확대하면서 1,113.90원까지 고점을 높인 후 네고물량 유입에 전일대비 7.40원 상승한 1,113.3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13.8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08.50	1113.90	1107.40	1113.30	1110.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10.41	1015.63	1009.66	1015.32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0.56	1360.53	1350.30	1359.27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	-0.67	-0.97	-1.49
	결제환율(수입)	0.12	0.35	0.54	1.0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b>금일 전망</b>	미국 고용지표 대기 속 위험선호 분위기에.. 1,10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13.3원) 대비 2.15원 내린 1,111.0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대기 속 위험자산 선호와 이월 네고 및 중공업 물량 경계에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미국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고 이는 이전보다 다소 빠른 속도라고 진단하였으나 미국 10년 물 국채금리는 1.5%~1.6% 사이의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다. 또한,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에 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하였다. 연이은 중공업 수주 소식은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인민은행의 위안화 강제 속도조절로 인한 달러/위안 하락 진정과 저가매수 수요는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7.00 ~ 1114.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62.5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15원 ↓
	■ 美 다우지수 : 34600.38, +25.07p(+0.0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2.7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3778 억원

###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